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6.00원 상승한 1,222.20원에 마감
------	------------------------------

13일 환율은 전일 대비 6.00원 상승한 1,222.20원에 마감하였다.

13일 달러-원 환율은 NDF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19.50원에 개장하였다. 이날 홍콩, 아르헨티나, 그리고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진 탓에 지속적으로 환율에 상승압력이 가해졌지만, 당국의 강한 경계감으로 인해 상승압력이 일부 상쇄되어 장 마감 직전까지 1,22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환율은 1,218~1,219원의 박스권 횡보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장 마감 직전 환율은 위안화와 연동하여 빠르게 상승폭을 키웠으며, 1,220원을 돌파하여 1,220.20원에서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18.9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160.96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9.50	1222.20	1217.20	1222.20	1218.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42.51	1152.58	1142.51	1152.03	
금일 전망	미국의 관세연기에 분위기 급반전 되며, 1,200원 중반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1,20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222.20원) 대비 15.45원 하락한 1,205.7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하락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화해 무드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오는 9월부터 부과기로 한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연기한다고 성명을 밝혔으며, 트럼프는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중국도 미국과의 협상 지속의사를 밝혔다.

다만, 미중간의 긴장완화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 분위기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02.33 ~ 1210.83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64.6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5.45원 ↓
	■ 美 다우지수 : 26279.91, +372.54p(+1.4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1.8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00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